

새로운 천년기 앞에 선 두려움과 희망

《밀레니엄》과 《서기 1000년과 서기 2000년, 그 두려움의 흔적들》

이연규

경성대 교수 · 서양사학

이제 몇년 뒤면 서기 2000년이 다가온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끝에 0이 들어간 때에는 무언가 두려움과 기대를 함께 갖게 된다. 필자 역시 바로 며칠 전 만40세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건강에 신경을 써야겠다. 삶을 보람 있게 마무리짓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야겠다. 보험에 들어야겠다는 절실한 마음을 비로소 갖게 되었으니 말이다. 서양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천년기(千年期) - 밀레니엄 - 를 한차례 더 넘기려는 이 시점에서 더욱 절실한 것 같다.

하지만 사실 천년기란 결국 인간이 만든 하나의 기준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해를 원년(元年)으로 삼느냐는 문명에 따라, 나라에 따라, 그리고 어쩌면 개인에 따라 서로 달라질 수 있다. 오히려 개인의 연령에 따라 끝에 0이 붙는 해가 가장 중요할 수도 있다. 공자가 10년씩 삶을 나누어 그가 이룬 수준을 설교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양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원년을 삼았고, 원년의 설정은 이른바 천년왕국설과 결합하여 천년기가 바뀌는 시점에 매우 커다란 의미를 두게 만들었다. 천년왕국설에 따르면 예수가 재림하기 바로 전에 엄청난 전쟁과 재앙이 인류에게 닥쳐오고, 그 뒤에는 최후의 심판이 벌어지며, 이를 통해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서양사람들, 곧 유럽의 기독교계 사람들에게는 천년기가 바뀌는 시점이 재앙이 닥쳐오리라는 두려움과 그에 뒤이은 안정을 바라는 희망이 함께 공존하는 시기가 아닐 수 없었다.

2000년을 앞둔 서양세계 조망

필자가 소개하려는 두 책 - 《지난 1000년의 인류 역사와 문명의 흥망, 밀레니엄》(펠리프 페르난데스-아메스트/허종열 옮김)과 《서기 1000년과 서기 2000년, 그 두려움의 흔적들》(조르주 뒤비/양영란 옮김)은 바로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된 저작이라 할 수 있다. 두 책은 모두 1000년 전의 상황과 2000년을 넘어가려는 오늘날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2000년을 앞둔 서양세계의 두려움 그리고 희망을 조망하는 공통된 측면을 갖고 있다.

《...흔적들》은 오늘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을 1000년을 전후한 중세 세계의



사람들도 느꼈는지, 그리고 두 시대 사이에 두려움의 성격이 어떻게 달랐는지, 또한 그러한 두려움에 대한 중세인의 태도에서 현대인이 배울 만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중세사를 평생토록 연구한 역사학자 조르주 뒤비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편집되어 있다. 짤막한 질문과 어렵지 않은 답변으로, 대화에 관련된 총천연색 삽화로, 그리고 더 나아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번역자의 멋진 솜씨 덕분에 독자는 매우 쉽게 책을 읽어나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질문에 답변하는 뒤비는 대체로 중세인에게는 공동체 의식과 순진한 신앙심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그래서 뒤이은 희망의 시대를 여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반면, 현대인에게는 두려움을 식이는 그와 같은 요소가 부족했다고 본다. 하지만 그가 비교하는 것은 1000년에서 1500년에 이르는 500여년과 2000년을 앞둔 오늘날이며, 따라서 이 책은 그 제목과는 달리 두번째 천년기(1000년에서 오늘날)의 전반기와 후반기를 비교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거시적으로 바라본 1000년의 역사

《밀레니엄》은 《...흔적들》에 비해 훨씬 더 무거운 책이다. 여기에서 무겁다는 것은 학문적으로 깊이가 더 깊다든지 아니면 책의 두께가 더 두껍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흔적들》은 서양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반면, 《밀레니엄》은 지난 1000년의 인류역사를, 필자가 말하듯이 먼 훗날의 '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책략과 사기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정복했으며, 강압과 폭력을 통해서만 식민지를 착취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오늘날 제3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쿠데타와 역쿠데타도 식민제국이 남긴 유산이라고 저자는 보고 있다.

하지만 저자의 서술은 궁극적으로 19세기 말의 이른바 세기말 풍조 - 서양사람들이 공연히 동양세력의 진출을 두려워하면서 동양사람들을 경원하던 풍조 - 를 회상케 한다. 에스파냐에게로 짐작되는 저자는 에스파냐가 네덜란드와 영국에 밀렸고, 새로운 조국인 영국마저도 다시 '태평양 세력'에 밀리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서유럽의 세계 제패가 어떻게 보면 행동과 사기(詐欺)의 결과라고 보는 것조차 저자가 '태평양 세력'의 위협을 얼마나 실감하고 있는가를 드러내보이는 것 같다.

서유럽 편향적 세계관 벗어나

그럼에도 《밀레니엄》은 그 거시적인 통찰, 세계의 모든 문명에 대한 상세하고도 동감 어린 서술, 서유럽에게 희생된 문명들에 대한 공감 따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하다. 이제껏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서양사 아닌 세계사 교육에서는 지배자인 서유럽 세력만이 부각되었을 뿐 그들에게 정복당한 세력은 무시되어 왔다. 이 책은 그러한 편향을 많은 부분 해소했다는 점에서 독자들은 반드시 읽고 나름대로의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단지 필자가 경험했듯이, 독자들은 이 천년의 세월을 읽으면서 온 세계의 문명과 사건과 인물을 오락가락해야 하고, 번역된 문장의 딱딱함과 드물게나마 부딪치는 오역을 참아내야 하는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할 것이다. 끝으로 두 책에 관련하여 서양인들이 그토록 심각하게 여기는 천년기의 전환이 우리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점도 새겨두어야 한다. ◆

· 《밀레니엄》(상·하)
한국경제신문사/A5신/560면 내외/각 12,000원
· 《서기 1000년과 서기 2000년, 그 두려움의 흔적들》
동문선/A5신/192면/8,000원